

재일(在日)제주인 기업가의 사회적 배경 연구*

고광명**
kkm0630@jejunu.ac.kr

<目次>

- | | |
|------------------|--------------------|
| 1. 머리말 | 3.3 분석을 위한 유형 구분 |
| 2. 기존연구의 검토 | 4. 연구결과 |
| 2.1 재일상공인과 재일기업가 | 4.1 표본 특성 |
| 2.2 기존연구의 검토 | 4.2 사회적 배경 특성 |
| 3. 연구대상 및 방법 | 5. 맺음말 |
| 3.1 연구대상 | 5.1 연구결과의 요약 |
| 3.2 연구방법 | 5.2 연구결과의 시사점 및 한계 |

主題語: 재일제주인(Jeju Island in Japan), 기업가(Entrepreneur), 사회적 배경(Social Background),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 정체성(identity)

1. 머리말

현재 재일제주인은 2012년 기준으로 전체 재일한국인 545,401명 중 86,231명으로 약 16%를 차지하고 있다.¹⁾ 이들은 제주도의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1910년대 초반부터 일본으로 건너가서 자긍심과 애향심, 상호간 네트워크를 통해 정체성(identity)을 찾고자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였다. 이 네트워크는 이주에서부터 정착과정에 필요한 직업을 구하고 생활문제를 해결하는 일까지 삶의 변화에 따른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활용되어 왔다.²⁾

게다가 제주도 출신들은 오사카를 근거지로 삼아 상공업활동을 두드러지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규모 자본을 축적한 이들은 고무, 유리, 유지, 피혁, 섬유, 잡화 등을 생산하는 제조업에 이르기까지 사업 영역을 점차 넓혀나갔다. 그 중에서도 고무는 생산설비가 간단하고

* 본 연구는 2011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35C-2011-2-B00177).

** 제주대학교 재일제주인센터 특별연구원

1) 入管協會(2007)『在留外國人統計』

2) 고광명(2008)「재일제주인의 삶과 사회적 네트워크」『日本近代學研究』22, 韓國日本近代學會, pp.187-210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아 가장 먼저 가내수공업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재일제주인의 일부는 고무관련 가내수공업을 통해 적지 않은 재력을 모았지만, 이와 관련된 공장은 1949년 후반부터 일본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고 대형 제조업체가 등장함에 따라 점차 소멸되어 소수만 남게 되었다. 이후 제주도 출신들은 유기업, 음식점 등 서비스 업종으로 사업을 확대하여 나갔는데, 특히 유기업은 소자본으로 사업이 가능하고 자금 회전율이 높아 사업기반을 마련하지 못한 이들에게 적합한 업종이었다.³⁾

한편 재일제주인 중에는 일본 사회에서 온갖 차별 속에 어렵게 생활해 나가고 있는 동향 출신자들이 상당수 존재한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일부는 일본에 건너가 어려운 속에서도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한 기업가들도 존재한다. 일본으로 이주한 이들은 생산, 섬유, 인쇄, 군사공장, 양산제조, 연필제조, 재생자원, 풍선공장, 금속제조, 어묵공장, 우산가공, 선박회사, 방직공장, 철강, 가방, 재봉(봉제), 플라스틱, 유리, 광부광산, 신발(구두)제조, 토목건축, 고무 등 제조업 분야에서 종사하였다.⁴⁾ 또한 이들 대부분은 조선, 탄광, 토목공사에 단순노동으로 투입되거나 방직과 고무공장 등에서 일하면서 인간적 대우를 받지 못하는 중노동에 시달려만 했던 적이 있다. 결국 이들은 이주 초기에 양곡판매점, 잡화상, 공장노동을 통해 익힌 기술을 바탕으로 플라스틱, 고무, 유리 관련 가내수공업, 신발공장, 봉제업에 종사하면서 정말 힘들게 자본을 형성해 왔다. 1970년대에 이르면서 1세 기업가들은 2선으로 물러나고 지금은 23세대가 전면에서 나서기 시작하면서 자기 분야에서 독특하고 눈부시게 활동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본 사회에서 기업을 설립하거나 경영의 최고 위치에 있었던 제주도 출신들이 출생 시기, 출신지역, 학력, 교육지역, 업종, 경영형태 등을 포함하여 어떠한 개인적 사회적 배경 하에서 탄생하여 기업가활동을 영위하게 되었는지를 규명하는 데 있다.⁵⁾ 특히 최근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에 대한 관심이 국제적으로 높아지는 시점에서 본고에서는 재일제주인의 자본형성에 기여한 기업가의 등장에 따른 사회적 배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고찰하여 기업가적 특성을 모색하는 데 있다.

3) 고광명(2013)『재일(在日)제주인의 삶과 기업가활동』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4) 제주대학교 재일제주인센터(2014)『재일제주인 기업가 현황 및 실태 조사 보고서』

5) 鳥羽欽一郎(1988)『日本における企業家經營者の研究』早稻田大學産業經營研究所

2. 기존연구의 검토

2.1 재일상공인과 재일기업가

재일상공인이라는 용어를 한마디로 규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굳이 표현해야 한다면 재일한국인 중에서 상공기업(商工企業)을 경영하는 사람을 일컬어 재일상공인(이하 상공인, 동포상공인 등)이라고 말할 수 있다. 상공(商工)이란 대개 상업과 공업 또는 상인과 공인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상공인은 글자 그대로 상인(商人)과 공인(工人)이란 표현을 사용하는데 상인이란 표현은 잘 어울리는 반면 공인이란 단어는 왠지 어색한 느낌이 든다. 공인이란 용어는 중국어로 근로자의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상공인을 상인과 공인으로 구분하여 해석하는 데 다소 무리가 있다. 그래서 상공인이란 용어는 상업과 공업을 경영하는 사람 혹은 상(商)기업이나 공(工)기업을 다루는 사람으로 해석하는 편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경영이란 용어는 보통 기업을 경영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에 상업이나 공업의 경영자를 상공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이것은 사업상 관계를 가지거나 종사하는 의미를 나타내므로 넓은 범위에서 보면 모든 사람들이 포함될 수 있다. 결국 상공인이란 상업이나 공업을 경영하거나 그것에 직접 관련되는 사람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⁶⁾

따라서 재일기업가의 개념은 재일한인으로 일본 사회에 거주하면서 생활을 영위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상공업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재일재주인 기업가의 개념도 그 대부분이 생업을 위해 상공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인식하고자 한다.

2.2 기존연구의 검토

본 연구의 목적은 재일재주인 기업가를 유형화하여 기업가 탄생의 사회적 배경을 살펴보는 데 있다. 최근까지 국내외에서 발표된 대부분의 연구결과를 보면, 기업가의 사회적 배경에 대한 규명보다는 기업가정신에 관한 접근이 주를 이루어 왔다. 더욱이 국내에서 재일한인(재주인) 기업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는 있으나, 기업가의 사회적 배경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이하에서는 기업가의 사회적 배경과 관련된 기존의 선행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6) 吳圭祥(1992)『在日朝鮮人企業活動形成史』雄山閣

우선, Cooper et al.(1987)은 기업가 중에서 부모가 자영업에 종사하거나 기업가인 경우가 50% 정도를 차지한다고 했다. 이는 가정환경에서 어린 시절에 부모가 보여주는 기업가적 기질이 자녀의 성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⁷⁾ Lerner et al.(1997)은 이스라엘 여성 기업가의 성과와 관련한 연구에서 사회학습이론(창업 기업가 부모, 인적자본(학력, 이전 직업, 이전 창업경험, 이전 직위, 사업기술 등), 동기목적(성취동기, 자율성 동기, 경제적 동기), 네트워크(조언자, 인적 네트워크 수), 인구 통계적 변인(연령, 자녀 수, 결혼 여부), 환경요인(재정원천, 산업특성) 등의 요인과 재무적·비재무적 성과와의 관계를 통해 동기와 사회학습, 인적 네트워크, 이전 창업경험, 직무경험, 기술, 환경 등의 요인이 성과와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밝혔다.⁸⁾ 한편 Collins et al.(1964)에 따르면 기업가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특성상 남의 지배를 받기 싫어하며 상당히 개성들이 강하여 교육수준과 반비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⁹⁾ Stuart et al.(1987) 연구에서는 신생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요인으로 창업경험이 중요하며 기업가의 교육수준이 오히려 성과와 역의 관계로 나타났다.¹⁰⁾ 그러나 Cooper et al.(1987)은 중소기업의 창업자(890명)에 대한 연구 조사에서 66% 이상이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부분을 감안한다면 교육정도는 기업가의 특성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으로 판단된다.¹¹⁾

다음으로 石川健次郎(1974)은 『大人名事典』의 직종란에 실업가라고 기술된 422명(조사 항목은 출신, 가족 내 지위, 출생지, 최초 이주지, 교육지역 등)을 대상으로 메이지(明治)시대의 기업가활동에 대한 통계적 관찰을 시도하였다.¹²⁾ 青沼吉松(1965)은 최고경영층 420명(조사 항목은 거주지와 출생지, 고등교육기관의 배치, 지역별 경영자 배출비율, 학력 등)을 추출하여 1965년 전후 공업화와 관련된 경제주체의 문제를 규명하였다.¹³⁾ 滿成博(1960)은 일본 산업계(회장, 사장, 경제단체의 대표자 등) 212명(조사 항목은 출신, 학력, 업종, 경력 등)을 조사하여 현대 비즈니스 엘리트가 연공서열제도, 교육제도, 기업 내 관료제와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시도하였다.¹⁴⁾ Hirshmeier(1964)는 일청(日淸)전쟁 이전에 혁신적인 활동을 수행한 기업가

7) Cooper, A. C. & W. C. Dunkelberg(1987) Entrepreneurial Research : Old Questions, New Answers and Methodological Issues, American Journal of Small Business 11(3), pp.11-23

8) Lerner, M., Brush, C. & Hisrich, R.(1997) Israeli Women Entrepreneurs : An Examination of Factors Affecting Performance,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2(4), pp.315-339

9) Collins, O. F. & G. Moore(1964) The Enterprising Man, East Lansing. MI

10) Stuart, R. W. & P. A. Abetti(1987) Start-up Ventures : Towards the Prediction of Initial Succes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3), pp.215-230

11) Cooper, A. C. & W. C. Dunkelberg(1987), op. cit.

12) 石川健次郎(1974)「明治期における企業家活動の統計的觀察」『大阪大學經濟學』23(4) 大阪大學經濟研究所, pp.85-117

13) 青沼吉松(1965)『日本經營層』日本經濟新聞社

50명(조사 항목은 출생년도, 출신계급, 실무훈련, 업적 등)을 추출하여 재벌창업자를 비롯한 혁신성과 지도력 지닌 실업가의 고찰을 통하여 메이지시대 기업가의 일반성에 대해 검증을 시도하였다.¹⁵⁾ 淺野俊光(1980)은 일본 공업화 시대에 적극적인 활동을 나타낸 인물 212명(조사 항목은 출생년도, 출신계급, 훈련, 도시, 기업유형 등)을 추출하여 도시의 대재벌, 지도력을 갖고 있는 대(大)실업가에 조사의 초점이 지나치게 편중되고 있음을 지적했다.¹⁶⁾ 麻生 誠(1970)은 출생연대별(각각 127명과 120명)로 비즈니스 엘리트(조사 항목은 출신, 학력, 경력 패턴, 엘리트의 학력구성, 평균 연령 등)를 대상으로 사회적 성격의 결정요인, 역할 규정에 대한 영향, 출신계급과 이익의 관계 등 사회적 출신계층을 고찰하였다.¹⁷⁾

이 외에도 본 주제와 관련하여 한국에서의 기존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金泳謨(1971)는 日帝時 대지주의 사회적 배경이 대단히 높고 권력, 즉 경제외적 방법을 통해 토지자본을 형성하였는데, 그들의 사회변동은 오늘날 한국 사회의 권력 지배층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다.¹⁸⁾ 한상복(1997)은 경북 영주시 풍기읍(豊基邑)의 직물산업 중소기업가들의 사회적 배경과 경제행위에 관한 경험적 자료를 통하여 사례연구를 시도하였다. 직물기업가들의 사회적 배경은 초창기에 이북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나 최근에는 본고장 출신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직물기업가들의 사회계층과 생활양식은 기업의 규모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었으며, 경제행위도 자산 및 투자의 규모와 형태에 따라 각기 다르게 나타났다.¹⁹⁾ 김영수(1996)는 중소기업(151사)을 대상으로 기업가의 배경적 특성과 기업가적 행동의 관계를 규명하였다. 이 연구는 기업가의 객관적 요인보다는 기업가의 심리적 특성 등 주관적 요소에 중점을 두어 이루어졌다.²⁰⁾ 이덕훈(2003)은 전후 일본경제의 성장과정에서 전전의 산업계를 대표하던 기성재벌의 붕괴 후에 등장한 새로운 기업경영자의 세 가지 유형(전문경영자, 창업자형, 준창업자형)에 대해 설명하고, 이들의 등장 과정과 요인에 대한 사회적 배경을 논하였다.²¹⁾ 고풋명(2006)은 《기업가의 개인이력서》 자료를 이용하여 일본 기업가의 사회적 배경

14) 滿成 博(1960)『ビジネス エリート』中央公論社刊

15) Hirshmeier(1964) The Origin of Entrepreneurship in Meizi Japan(土屋喬雄由井常彦訳(1965)『日本における 企業者精神の生成』東洋經濟新報社)

16) 淺野俊光(1980)『明治よりみた企業家の分析』『經營史學』14(3), 日本經營史學會, pp.87-115

17) 麻生 誠(1970)『大學と人材育成』中央公論社刊

18) 金泳謨(1971)『日帝時 大地主의 社會的 背景과 移動』『아세아연구』14(2), 고려대학교 아세아연구소, pp.107-125

19) 한상복(1997)『풍기(豊基) 직물산업 중소기업가들의 사회적 배경과 경제행위』『농촌사회』7, 한국농촌사회학회, pp.5-32

20) 김영수(1996)『기업가적 행동성향의 결정요인과 성과와의 관계 : 중소기업을 중심으로』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1) 이덕훈(2003)『戰後 日本의 企業家の 등장과 사회적 배경』『일본문화학보』17, 한국일본문화학회, pp.1-20

특성이 무엇인지를 고찰하였다. 특히, 일본에서는 기업가의 출신성분에 따라 기업가 유형이 다르게 나타났으며, 기업가의 사회적 배경에 대해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되었다고 했다.²²⁾ 고광명(2008)은 『20世紀 濟州人名事典』 등에서 조사한 자료를 이용하여 제주도 기업가 유형에 따라 기업가적 특성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밝혔다. 특히, 제주도 기업가는 일제강점기 토착자본을 바탕으로 도민자본을 형성하였고 신용과 근면, 절약을 상인정신으로 삼았으며, 경영성과인 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기업가 윤리를 몸소 행동으로 보여 주었다.²³⁾ 고광명(2012)은 조선인 기업가(119명)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이들 기업가 유형이 학력, 경영다각화, 업종보다는 출생시기, 출신지역, 활동시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혔다.²⁴⁾

이상의 기존연구를 종합하면 기업가 연구와 관련하여 사회적 배경 등의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으나, 사실상 제일제주인 기업가의 사회적 배경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드문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일제주인 기업가의 사회적 배경에 따른 기업가 유형을 살펴봄으로써 기업가사적 측면에서 기존연구와는 차별성을 가진다고 여겨진다.

3. 연구대상 및 방법

3.1 연구대상

본 연구는 共同新聞社(1989)가 제일제주인 기업가를 수록한 『在日韓國人實業名鑑(關西版)』을 기본적인 원 자료(raw data)로 하고 있다.²⁵⁾ 이 자료에 수록된 기업가는 약 2,500명(大阪府 약 1,500명, 京都府 약 400명, 兵庫縣 약 600명)에 이르고 있다. 본고에서는 제일제주인 기업가 중 일본 사회에서 경영활동을 수행한 제주도 출신 기업가 562명(大阪府 523명, 京都府 8명, 兵庫縣 31명)을 우선 추출한 후, 기업가 유형에 따른 사회적 배경 관련 자료가 양호한 155명(大阪府 137명, 京都府 1명, 兵庫縣 17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22) 고광명(2006)「일본 기업가의 사회적 배경 연구」『동아연구』51,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pp.191-216

23) 고광명(2008)「일제하 제주도 기업가의 사회적 배경 연구」『經營史學』23(2) 한국경영사학회, pp.221-251

24) 고광명(2012)「日帝下 조선인 기업가의 사회적 배경 연구」『日本近代學研究』37 韓國日本近代學會, pp.441-462

25) 共同新聞社(1989)『在日韓國人實業名鑑』

3.2 연구방법

본 자료에서는 재일재주인 기업가의 사회적 배경에 따른 기업가 유형 특성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수치와 같은 기본정보 이외에 보다 분석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재일재주인 기업가 유형과 관련된 유용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조사 자료에 수록된 모든 사회적 배경과 관련된 수치를 M/S Excel 프로그램에 Coding하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다시 말하면 재일재주인 기업가의 목록자료를 Excel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이들 기업가(155명)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 요인을 포함한 출생시기, 출신지역, 학력, 교육지역, 업종, 경영형태 등 기업가의 사회적 배경과 관련하여 어떠한 특성을 갖는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수집된 자료는 내용분석법(content analysis)을 이용하여 재일재주인 기업가들의 사회적 배경을 내용별로 분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에 의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우선, 기존의 연구자²⁶⁾에 의해 사용되었던 분류기준을 참고하여 기업가 유형을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Chi-Square 검증을 통해 재일재주인 기업가 유형 특성에 따른 빈도 차이의 통계적 유의성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각 기업가별로 재일재주인 기업가의 사회적 배경에 대한 기업가 유형 특성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통계 프로그램은 SPSS 12.0 version으로 빈도분석(frequencies analysis)과 교차분석(cross tabulation)을 사용하였다.

3.3 분석을 위한 유형 구분

본 연구에서는 1945년 이전부터 1989년까지 일본 사회에서 활동한 주요 재일재주인 기업가를 4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사회적 배경 항목을 다음과 같이 6개로 분류하였다.

우선 기업가 유형은 분석대상 기업가에 따라 I 유형(생계유지형), II 유형(사업전업형), III 유형(사업전향형), IV 유형(가업계승형) 등과 같이 4가지 유형으로 제시되어 명목적으로 변환하였다. 이처럼 기업가 유형을 4가지로 구분한 이유는 일반적으로 재일재주인 기업가와 관련하여 프로필에서 많이 표현되거나 언급된 내용을 중심으로 유형화하여 구분하였다. I 유형은 생계유지를 위해 지금까지의 직업경험을 살려서 개인경영 형태로 창업한 경우이다. II 유형은 기존기업이나 가족기업 혹은 주변의 친척들과 함께 법인회사 형태로 창업한 경우이다. III 유형은 기존의 직업이나 직장경험, 경영 노하우, 전문적인 기술, 실무경험 등을 살려서 창업한 경우이다. IV 유형은 재일재주인 1·2세들의 부모나 친척으로부터 사업의 경영권을 계승한 경우

26) 고광명(2013), 앞의 책

이다.

다음으로 사회적 배경 항목과 관련하여 ① 출생시기는 1938년 이전, 1939~1945년, 1945년 이후와 같이 3개 항목으로 구분하였다. 이와 같이 기업가의 출생시기를 구분한 것은 1938년 이후 일본 정부의 전쟁 수행을 위한 강제 조치, 1945년 해방 이후 제주도 출신자들이 이주하여 재일제주인 사회를 형성해 가는 시기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② 출신지역은 제주시, 북제주군, 서귀포시, 남제주군 등과 같이 4개로 구분하였다. 이처럼 지역을 4개의 카테고리로 묶은 이유는 당시 기업가의 출신지역을 감안하여 1946년 도제(道制) 실시 이후 4개 지역으로 분류했기 때문이다. ③ 학력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학교, 대학 이상과 같이 5개 항목으로 구분될 것이나 분석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하나로 묶어 중졸 이하, 고졸, 전문학교졸, 대졸(중퇴 포함) 이상 등과 같이 4개로 구분하였다. ④ 교육지역은 국내, 일본(한국 학교), 일본(일본 학교) 등과 같이 3개로 구분하였다. 이는 제주도와 국내에서 학업 중이거나 졸업한 경우가 있었지만 일본 이주 이후 일본에서 학업을 수학한 경우도 존재했기 때문이다. ⑤ 업종은 농림수산광업, 건설, 제조, 상사도매, 소매·판매, 금융·증권·보험, 부동산, 운수, 정보서비스 등과 같이 9개로 구분하였으나 제조업, 비제조업, 혼합(제조업·비제조업) 등과 같이 3개 항목으로 구분하였다. ⑥ 경영형태는 개인상점, 공업소(제작소, 철조소 등), 유한회사, 주식회사와 같이 4개로 구분하였으나 ‘개인상점과 공업소·제작소·철조소 등’을 하나로 묶어 개인경영, 유한회사, 주식회사 등과 같이 3개 항목으로 범주화하였다.

4. 연구결과

4.1 표본 특성

<표 1>은 재일제주인 기업가의 표본특성을 살펴본 것이다. 출생시기는 1938년 이전 71명(46.1%)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1938~1945년 53명(34.4%), 1945년 이후 30명(19.5%)으로 나타났다. 출신지역은 북제주군 65명(41.9%), 제주시 39명(25.2%), 남제주군 35명(22.6%), 서귀포시 16명(10.3%)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대졸 이상 52명(52.5%), 고졸 38명(38.4%), 전문학교졸 5명(5.1%), 중졸 이하 4명(4.0%)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지역은 일본(일본 학교) 87명(87.8%), 일본(한국 학교) 7명(7.1%), 국내 5명(5.1%) 순으로 나타났다. 업종은 제조업 98명(63.7%), 비제조업 49명(31.8%), 혼합(제조업·비제조업) 7명(4.5%) 순으로 나타났다. 경영형태

는 주식회사 88명(56.8%), 개인경영 64명(41.3%), 유한회사 3명(1.9%) 순으로 나타났다.

<표 1> 표본 특성

(단위 : 명, %)

구분	항목	인원	빈도	구분	항목	인원	빈도	
출생 시기	1938년 이전	71	46.1	학력	대졸 이상	52	52.5	
	1938~1945년	53	34.4		교육 지역	국내	5	5.1
	1945년 이후	30	19.5			일본(1)	7	7.1
출신 지역	제주시	39	25.2	일본(2)		87	87.8	
	북제주군	65	41.9	업종	제조업	98	63.7	
	서귀포시	16	10.3		비제조업	49	31.8	
	남제주군	35	22.6		혼합	7	4.5	
학력	중졸 이하	4	4.0	경영 형태	개인경영	64	41.3	
	고졸	38	38.4		유한회사	3	1.9	
	전문학교졸	5	5.1		주식회사	88	56.8	

주 1) 일본(1)은 일본 내 한국 학교, 일본(2)은 일본 내 일본 학교에서 수학한 경우임.

주 2) 155사 중에서 결측치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음.

4.2 사회적 배경 특성

1) 출생시기별 특성

<표 2>는 출생시기별에 따른 기업가 유형 특성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재일제주인 기업가는 1938년 이전 71명(46.1%), 1939년~1945년 53명(34.4%), 1945년 이후 30명(19.5%) 등의 비율을 나타냈다.

출생시기별 특성을 살펴보면, 1938년 이전은 II유형 36명(23.4%), 1938년~1945년은 I 유형 16명(10.4%), 1945년 이후는 IV유형 23명(14.9%)으로 나타나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출생시기별에 따른 기업가 유형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chi^2(6)=67.177, p=0.000$)가 있었으며, Cramer's V값이 .467로 나타나 실제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표 2> 출생시기별 특성

(단위 : 명, %)

출생시기 \ 유형	I 유형	II 유형	III 유형	IV 유형	χ^2	p	Cramer's V
1938년 이전	13(8.4)	36(23.4)	17(11.0)	5(3.2)	67.177	0.000	.467
1938년-1945년	16(10.4)	10(6.5)	15(9.7)	12(7.8)			
1945년 이후	4(2.6)	0(0.0)	3(1.9)	23(14.9)			

주) * p<0.1, ** p<0.05, *** p<0.01

2) 출신지역별 특성

<표 3>은 출신지역별에 따른 기업가 유형 특성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재일제주인 기업가는 북제주군 65명(41.9%), 제주시 39명(25.2%), 남제주군 35명(22.6%), 서귀포시 16명(10.3%) 등의 비율을 나타냈다.

출신지역별 특성을 살펴보면, 북제주군은 II 유형 23명(14.8%), 남제주군은 IV 유형 16명(10.3%)으로 나타나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출신지역별에 따른 기업가 유형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chi^2(9)=18.650$, $p=0.028$)가 있었으며, Cramer's V 값이 .200으로 나타나 실제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표 3> 출신지역별 특성

(단위 : 명, %)

출신지역 \ 유형	I 유형	II 유형	III 유형	IV 유형	χ^2	p	Cramer's V
제주시	9(5.8)	9(5.8)	13(8.4)	8(5.2)	18.650	0.028	.200
북제주군	11(7.1)	23(14.8)	15(9.7)	16(10.3)			
서귀포시	7(4.5)	6(3.9)	2(1.3)	1(0.6)			
남제주군	6(3.9)	8(5.2)	5(3.2)	16(10.3)			

주) * p<0.1, ** p<0.05, *** p<0.01

3) 학력별 특성

<표 4>는 학력별에 따른 기업가 유형 특성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재일제주인 기업가는 대졸 이상 52명(52.5%), 고졸 38명(38.4%), 전문학교졸 5명(5.1%), 중졸 이하 4명(4.0%) 등의 비율을 나타냈다.

학력별 특성을 살펴보면, 고졸은 II유형 12명(12.1%), 대졸은 IV유형 21명(21.2%)으로 나타나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학력별에 따른 기업가 유형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chi^2(9)=29.200, p=0.001$)가 있었으며, Cramer's V값이 .314로 나타나 실제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표 4> 학력별 특성

(단위 : 명, %)

학력 \ 유형	I 유형	II유형	III유형	IV유형	χ^2	p	Cramer's V
중졸 이하	0(0.0)	4(4.0)	0(0.0)	0(0.0)	29.200	0.001	.314
고졸	11(11.1)	12(12.1)	10(10.1)	5(5.1)			
전문학교졸	0(0.0)	1(1.0)	4(4.0)	0(0.0)			
대졸 이상	5(5.1)	16(16.2)	10(10.1)	21(21.2)			

주) * p<0.1, ** p<0.05, *** p<0.01

4) 교육지역별 특성

<표 5>는 교육지역별에 따른 기업가 유형 특성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재일제주인 기업가는 국내 5명(5.1%), 일본(한국 학교) 7명(7.1%), 일본(일본 학교) 87명(87.9%) 등의 비율을 나타냈다.

교육지역별 특성을 살펴보면, 국내와 일본(한국 학교)은 별다른 차이가 없었으며, 일본(일본 학교)은 II유형 29명(29.3%)으로 나타나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교육지역별에 따른 기업가 유형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chi^2(6)=9.809, p=0.133$)가 없었으며, Cramer's V값이 .223으로 나타나 실제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지 못했다.

<표 5> 교육지역별 특성

(단위 : 명, %)

교육지역 \ 유형	I 유형	II유형	III유형	IV유형	χ^2	p	Cramer's V
국내	0(0.0)	2(2.0)	3(3.0)	0(0.0)	9.809	0.133	.223
일본(1)	3(3.0)	2(2.0)	0(0.0)	2(2.0)			
일본(2)	13(13.1)	29(29.3)	21(21.2)	24(24.2)			

주) * p<0.1, ** p<0.05, *** p<0.01

5) 업종별 특성

<표 6>은 업종별에 따른 기업가 유형 특성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재일제주인 기업가는 제조업 98명(63.6%), 비제조업 49명(31.8%), 혼합 7명(4.5%) 등의 비율을 나타냈다.

업종별 특성을 살펴보면, 제조업은 IV유형 31명(20.1%), 비제조업은 II유형 20명(13.0%)으로 나타나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업종별에 따른 기업가 유형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chi^2(6)=11.136$, $p=0.084$)가 있었으며, Cramer's V값이 .190으로 나타나 실제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표 6> 업종별 특성

(단위 : 명, %)

업종 \ 유형	I 유형	II 유형	III유형	IV유형	χ^2	p	Cramer's V
제조업	23(14.9)	23(14.9)	21(13.6)	31(20.1)	11.136	0.084	.190
비제조업	8(5.2)	20(13.0)	14(9.1)	7(4.5)			
혼합	2(1.3)	2(1.3)	0(0.0)	3(1.9)			

주) * $p<0.1$, ** $p<0.05$, *** $p<0.01$

6) 경영형태별 특성

<표 7>은 경영형태별에 따른 기업가 유형 특성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재일한인 기업가는 주식회사 88명(56.8%), 개인경영 64명(41.3%), 유한회사 3명(1.9%) 등의 비율을 나타냈다.

경영형태별 특성을 살펴보면, 개인경영은 I 유형 33명(21.3%), 주식회사는 II유형 44명(28.4%)으로 나타나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경영형태별에 따른 기업가 유형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chi^2(6)=83.069$, $p=0.000$)가 있었으며, Cramer's V값이 .518로 나타나 실제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표 7> 경영형태별 특성

(단위 : 명, %)

경영형태 \ 유형	I 유형	II 유형	III 유형	IV 유형	χ^2	p	Cramer's V
개인경영	33(21.3)	0(0.0)	18(11.6)	13(8.4)			
유한회사	0(0.0)	2(1.3)	0(0.0)	1(0.6)			
주식회사	0(0.0)	44(28.4)	17(11.0)	27(17.4)			

주) * p<0.1, ** p<0.05, *** p<0.01

5. 맺음말

5.1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에서는 재일제주인 기업가의 사회적 배경에 따른 기업가 유형 특성을 살펴보았는데, 분석에 대한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일제주인 기업가의 표본 특성을 살펴보면, 출생 시기는 1938년 이전 71명(46.1%), 출신지역은 북제주군 65명(41.9%), 학력은 대졸 52명(52.5%), 교육지역은 일본(일본 학교) 87명(87.8%), 업종은 제조업 98명(63.7%), 경영형태는 주식회사 78명(56.8%)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둘째, 출생시기별 특성을 살펴보면, I·II유형은 1938년 전후 출생한 비율이 높았지만 IV유형은 1945년 이후 출생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결국 생계유지나 사업전업의 경우는 1938년 전후에 출생하여 일본 이주 초기에 활동한 기업가가 많이 나타난 반면, 가업계승의 경우는 1945년 이후 출생하여 2세나 3세에게 경영권을 계승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출신지역별 특성을 살펴보면, II유형은 북제주군 출신이 높게 나타났지만 IV유형은 남제주군 출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들은 경제적, 사회적 목적으로 이주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도시 출신보다는 북제주군이나 남제주군 등 농어촌 출신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넷째, 학력별 특성을 살펴보면, II유형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지만 IV유형은 대학을 졸업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재일제주인 기업가는 이주 초기에 사업을 수행하는 데 충분한 학력을 가지지 못한 경우가 많았으나 일본으로 이주

한 이후 기업을 계승하여 기업을 원활하게 경영하기 위해 일본에서 대학을 다닌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교육지역별 특성을 살펴보면 II유형은 일본(일본 학교)에서 수학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본으로 이주한 이후 일본 사회에서 적응하기 위해 대학이나 대학원 등 고등 교육을 받은 기업가가 다수 탄생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업종별 특성을 살펴보면 II유형은 비제조업 비율이 높게 나타났지만 IV유형은 제조업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전업의 경우는 대중음식점, 유기업, 부동산업, 서비스업 등에 종사한 경우가 많았지만 기업계승인 경우는 플라스틱, 고무, 인쇄 등 제조업 분야에 종사하면서 2·3세에게 기업을 계승한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일곱째, 경영형태별 특성을 살펴보면, I유형은 개인으로 경영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지만 II유형은 주식회사 형태로 경영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생계유지의 경우는 소규모 자본으로 삶을 영위하기 위해 가족들과 함께 가방제조, 신발제조 등 일본인들이 싫어하는 업종에 진출하여 가내수공업으로 운영한 반면, 사업전업의 경우는 경영이나 기술 노하우를 가지고 일본 기업들과 경쟁하면서 제조업이나 서비스 업종을 중심으로 경영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출생 시기, 출신지역, 학력, 업종, 경영형태가 기업가 유형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지만 교육지역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들은 이주 초기에 자본, 경영에 대한 지식이나 노하우 등 불리한 경영환경 속에서도 상당한 자본을 축적하면서 민족과 국가에 대한 정체성을 형성하는 계기로 삼았다고 볼 수 있다.

5.2 연구결과의 시사점 및 한계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들은 최근 기업가의 사회적 배경에 대해 중요하게 인식되는 시기에 국내외 기업가(경영자)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를 통해 기대되는 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재일제주인 기업가의 사회적 배경에 따라 기업가 유형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둘째, 재일제주인 1세대는 최근 경제적 사회적으로 약화되면서 사업을 계승하는 형태의 기업가가 등장한 경우도 다소 있었지만 대부분의 기업가들은 생계유지나 사업전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것이다. 셋째, 재일제주인 기업가는 일본인에 비해 인적 네트워크가 미약하고 자본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가내수공업 형태로 경영활동을 수행한 경우가 다소 있었다. 넷째, 기업가의 사회적 배경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는 기업가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분류기준을 명확히 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더욱이 국내에서 발간된 기업가의 사회적 배경과 관련하여 경험적 자료에 대한 활용도가 낮은 시점에서 기존자료를 통하여 기업가의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향후 연구에서 보완되어야 할 몇 가지의 한계점이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共同新聞社(1989)가 재일제주인 기업가를 수록한 『在日韓國人實業名鑑(關西版)』에서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전개하였으므로 자료 수집에 따른 한계를 가지고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연구 자료를 보다 다양하게 확대시키고, 국가 간 사회적 배경의 비교를 통해 연구결과를 보완시키면서 일반화시키는 노력이 요망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 이용한 항목 외에 다른 항목을 추가하고 새로운 연구방법에 대한 검토를 통해 실증적 연구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즉, 기업가의 사회적 배경 특성에 대해서도 학술적 연구가 부족하고, 다양한 변수들과의 관련성이 검증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보다 구조적이고 실증적인 연구방법을 통해 연구를 전개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재일제주인 기업가만을 분석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즉, 본 연구의 결과가 다른 국가 및 지역에 속한 기업들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1989년 이전에 활동한 재일제주인 기업가의 사회적 배경을 대상으로 고찰을 시도하였지만, 향후에는 본 연구과제에 대한 논의를 정밀화하면서 1989년 이후에 활동한 기업가를 토대로 재일제주인 기업가의 사회적 배경을 분석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參考文獻】

고광명(2006)「일본 기업가의 사회적 배경 연구」『동아연구』51,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pp.191-216
 고광명(2008)「일제하 제주도 기업가의 사회적 배경 연구」『經營史學』23(2), 한국경영사학회, pp.221-251
 고광명(2008)「재일제주인의 삶과 사회적 네트워크」『日本近代學研究』22, 韓國日本近代學會, pp.187-210
 고광명(2012)「日帝下 조선인 기업가의 사회적 배경 연구」『日本近代學研究』37, 韓國日本近代學會, pp.441-462
 고광명(2013)「재일(在日)제주인의 삶과 기업가활동」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金泳謨(1971)「日帝時 大地主의 社會的 背景과 移動」『아세아연구』14(2), 고려대학교 아세아연구소, pp.107-125
 김영수(1996)『기업가적 행동성향의 결정요인과 성과와의 관계』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덕훈(2003)「戰後 日本의 企業家의 등장과 사회적 배경」『일본문화학보』17, 한국일본문화학회, pp.1-20
 제주대학교 재일제주인센터(2014)『재일제주인 기업가 현황 및 실태 조사 보고서』
 한상복(1997)「풍기(豊基) 직물산업 중소기업가들의 사회적 배경과 경제행위」『농촌사회』7 한국농촌사회학회, pp.5-32

- 共同新聞社(1989)『在日韓國人實業名鑑』
麻生 誠(1970)『大學と人材育成』中央公論社刊
滿成 博(1960)『ビジネス エリート』中央公論社刊
石川健次郎(1974)「明治期における企業家活動の統計的觀察」『大阪大學經濟學』23(4), 大阪大學經濟研究所, pp.85-117
吳圭祥(1992)『在日朝鮮人企業活動形成史』雄山閣
由井常彦ヒルシュマイア(1975)「江戸時代の價值體系とビジネス-明治期の工業化との關連において」『經營史學』10(1), 日本經營史學會, pp.34-53
入管協會(2012)『在留外國人統計』
鳥羽欽一郎(1988)『日本における企業家經營者の研究』早稻田大學産業經營研究所
淺野俊光(1980)『明治よりみた企業家の分析』『經營史學』14(3) 日本經營史學會, pp.87-115
青沼吉松(1965)『日本經營層』日本經濟新聞社
Collins, O. F. & G. Moore(1964) *The Enterprising Man, East Lansing, MI*
Cooper, A. C. & W. C. Dunkelberg(1987) *Entrepreneurial Research : Old Questions, New Answers and Methodological Issues, American Journal of Small Business* 11(3), pp.11-23
Lerner, M., Brush, C. & Hisrich, R.(1997) *Israeli Women Entrepreneurs : An Examination of Factors Affecting Performance,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2(4), pp.315-339
Hirshmeier(1964) *The Origin of Entrepreneurship in Meizi Japan*(土屋喬雄由井常彦訳(1965)『日本における企業者精神の生成』東洋經濟新報社)
Stuart, R. W. & P. A. Abetti(1987) *Start-up Ventures : Towards the Prediction of Initial Succes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3), pp.215-230

논문투고일 : 2014년 03월 10일
심사개시일 : 2014년 03월 20일
1차 수정일 : 2014년 04월 09일
2차 수정일 : 2014년 04월 15일
게재확정일 : 2014년 05월 20일

<要旨>

재일(在日)제주인 기업가의 사회적 배경 연구

본 연구에서는 재일제주인 기업가의 사회적 배경을 파악하기 위해 출생시기, 출신지역, 학력, 교육지역, 업종, 경영형태에 따른 재일제주인 기업가 유형 [I 유형(생계유지형), II 유형(사업전업형), III 유형(사업전향형), IV 유형(가업승계형)] 특성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 대한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일제주인 기업가의 표본 특성을 살펴보면, 출생 시기는 1938년 이전 71명(46.1%), 출신지역은 북제주군 65명(41.9%), 학력은 대졸 52명(52.5%), 교육지역은 일본(일본학교) 87명(87.8%), 업종은 제조업 98명(63.7%), 경영형태는 주식회사 78명(56.8%)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둘째, 출생시기별 특성을 살펴보면, I·II 유형은 1938년 전후 출생한 비율이 높았지만 IV 유형은 1945년 이후 출생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셋째, 출신지역별 특성을 살펴보면, II 유형은 북제주군 출신이 높게 나타났지만 IV 유형은 남제주군 출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학력별 특성을 살펴보면, II 유형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지만 IV 유형은 대학을 졸업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교육지역별 특성을 살펴보면 II 유형은 일본(일본 학교)에서 수학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업종별 특성을 살펴보면 II 유형은 비제조업 비율이 높게 나타났지만 IV 유형은 제조업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경영형태별 특성을 살펴보면, I 유형은 개인으로 경영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지만 II 유형은 주식회사 형태로 경영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출생 시기, 출신지역, 학력, 업종, 경영형태 등이 기업가 유형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지만 교육지역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들은 이주 초기에 자본, 경영에 대한 지식이나 노하우 등 불리한 경영환경 속에서도 상당한 자본을 축적하면서도 민족과 국가에 대한 정체성을 형성하는 계기로 삼았다고 볼 수 있다.

A Study on the Social Background of Jeju Island Entrepreneur in Japa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social background which were characteristics of Jeju Island Entrepreneur in Japan through the research sources, that is 'personal history of entrepreneurs'. The analysi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birth time of Jeju Island Entrepreneur in Japan were born ranged 1938 before(II type) for the most part, the rest belonged from 1939 to 1945(I type) and 1945 after(IV type) with sequence. Second, around half of Jeju Island Entrepreneur in Japan had Bukjeju-gun(II type) as their hometown, the rest of them had Jeju-si and Namjeju-gun(IV type), Seogwipo-si as their hometown. Third, the educational background of Jeju Island Entrepreneur in Japan was a college graduates or those with equivalent degrees(IV type) for the most part, the rest of them finish a junior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II type). Fourth, the educational region of Jeju Island Entrepreneur in Japan was Japanese region(Japan school) for the most part(II type), the rest of them had domestic region(Korea) and Japanese region(Korea secondary school in Japan). Fifth, Many business of Jeju Island Entrepreneur in Japan had manufacturing business(IV type) as their major compared with nonmanufacturing business(II type). Sixth, the management form of Jeju Island Entrepreneur in Japan was a stock company(II type) for the most part, the rest of them had private management(I type) and an incorporated company.

The result of this study gives entrepreneurs(CEO) suggestions in the time with increasing concerns about the social background of entrepreneurs. Also, this study provides an opportunity to recognize that the social background of Jeju Island Entrepreneur in Japan is different according to the type of entrepreneurs.